



2025 부활절 퍼레이드 “화합과 희망의 장 기대”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4월 19일 광화문서 개최
언더우드·아펜젤러 선교사 후손 참여로 의미 더해

2025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4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Because He lives!(살아계신 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 선교 140주년과 CTS기독교TV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더욱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 담회에서 「2025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 위원회는 행사 개요와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김답회에는 대회장인 대한예수교장

로회(통합) 김영길 총회장과 삼일회장인 일산관립교회 박동찬 목사를 비롯한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영상을 통해 “생명의 시작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2025 부활절 퍼레이드가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밖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주관사인 CTS기독교TV(이하 CTS) 김경철 회장은 “분열의 목소리로 가득한 광장이 부활 소망으로 희망한 내일을 꿈꾸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선교 140주년과 창사 30주년을 기념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거룩한 행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준다”고 전했다.

개최사를 전한 박동찬 목사는 “부활

절 퍼레이드 일반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희망과 사랑이 잘 전해지고,

세계 각지 모든 분에게도 부활의 의미



2025 부활절 퍼레이드 기자간담회 참석자 단체 사진. ©CTS

를 전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2025 부활절 퍼레이드 주제가 ‘Because He lives!(살아계신 주!)’이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사)한국교회총연합 신평식 목사는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죄인으로서의 평등이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

는 은혜의 평등”이라며 “이 평등사상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부활절 축제는 평등과 자유와 타인을 향한 존경과 겸손, 감사의 축제이다. 이 부활의 축제가 분노·원망·분쟁의 광장을 채우고, 거리를 바꾸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는 성경의 대서사와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담아낸 총 4막의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1막 ‘약속의 시작’ ▲2막 ‘고난과 부활’ ▲3막 ‘한반도와 북읍’ ▲4막

‘미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며, 개화기 시대상을 재현한 소품과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신앙의 역사를 되새길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퍼레이드는 세종대로 구간 안에서만 진행하며, 작년에 진행된 행사보다 구간 길이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피터 언더우드, 슬라 세필드, 매튜 세필드씨는 “140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마음으로 행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나무 십자가와 기와지붕으로 꾸며진 ‘100년 교회 플로트’를 비롯해 초기 한국교회의 교육 및 의료 선교를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선보여진다. 전문 공연팀이 참여해 역사적 장면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광화문 놀이마당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상설 부스가 운영된다. 저녁 6시에는 기념 음악회도 예정돼 있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전화(02-6333-1084) 또는 공식 홈페이지(k-east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조형제 총감독, 박동찬 목사, 신평식 목사, 조종윤 이사. ©CTS

화한 ‘Pre-Stage’와 뮤지컬 형식의 주제 퍼레이드로 차별화를 꾀한다. 대형 뮤지컬 형식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고품격 문화축제로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광화문 놀이마당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상설 부스가 운영된다. 저녁 6시에는 기념 음악회도 예정돼 있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전화(02-6333-1084) 또는 공식 홈페이지(k-east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요한 기자

한기총 “구속 취소 존중… 현재 심판도 적법절차를”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사진>, 이하 한기총>
최근 법원의 윤석열 대
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구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이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 수사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만일, 한법재판소가 절차를 무시하며,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진술과 더 육이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가지고 판결하게 된다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나아가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투표로

령 탄핵 심판에서도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린죄 철회 논란이 있었던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일, 한법재판소가 절차를 무시하며,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진술과 더 육이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가지고 판결하게 된다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나아가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국민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여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을 날발했던 행위를 즉각 멈추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멈춘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며, 하루빨리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수기총 “현재, 변론 재개해 괴종근 의혹 조사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최근 논평에서 “괴종근 전 사령관 내란조작 의혹, 철저한 수사와 변론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기총은 이 논평에서 “최근 TV조선 보도를 통해 괴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겼단다”는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괴 전 사령관의 진술이 강압과 회유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괴종근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겼다면 앙심선언을 협박한 세력은 누구인가?” △“그의 진술이 조작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무효가 아닌가?” △“현재는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려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제 현재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주요 증거가 조작되었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현재는 즉각 변론을 재개하고,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괴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대통령 탄핵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목회자 10명 중 7명 “요즘 목회하며 행복”

목회자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일반 국민들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대연)는 목회자 7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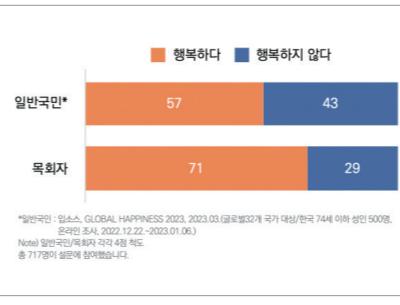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1%의 목회자가 ‘행복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고, ‘행복하지 않다’(별로+전혀)는 29%로 목회자 10명 중 7명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입소스가 지난 2023년 발표

한 ‘세계 행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행복하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이 57%였다.

목대연은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목회자가 느끼는 행복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행복도에 대한 일반 국민(위)과 목회자에 대한 조사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 7호선 바로 앞 초역세권 파격가 분양!
3.3m² 천만원대 단지내 상가!

(계약면적 평균 기준/부가세 별도)

Elgar
모아 엘가

초역세권 랜드마크 신상권!

천왕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스트리트형 상가
7호선 천왕역 바로 앞 수익을 만드는 가치!

계약금
1,000만원(1차)



10년전 분양가 일23,000명 유동인구 특급상권!

주변 8,000세대 대로변 단지내상가! 권장업종 강추!!!
편의점/부동산/커피숍/제과점/병원/학원/프랜차이즈점 등

| 천왕역 | 모아엘가 | 트레비 | 단지내 상가 선착순분양 PREMIUM 6

천왕역 초역세권 고정 배후수요 多 랜드마크 상가
도보/차량이용 상가 이용 편리, 고가/매출확보 유리

초역세권 넓고 편리한 자주식 주차
천왕 일평균 23,000여명, 8,000여세대 주거배후

10년전 분양가, 거울을 뺀 실속형 상가
합리적 분양가, 안정적인 수익 단지내 상가

新 주거운영 선점 상가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지 최종점지 선점, 미래가치 상승의 비전

대로변 연면 5M~14M 이상 노출 (94% 이상 호수)
넓은 전면 유통, 높은 광고효과, 다양한 연출 가능

대형 생활용품점 입점 상권 가치

천왕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스트리트형 상가

| 천왕역 | 모아엘가 | 트레비 |

사례사 : 주식회사 이리에이치엔씨

사례사 :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

사례사 : 고리아주택신식 주식회사

사례사 : 천왕동 흰집 주택사업자

※ 본 계약서에 사용된 CG 및 내용, 구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흥기 위해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로 일정에 이의제기할 수 없을 때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시기 또는 소비자의 이해를 흥기 위해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시공 및 인가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지정된 시

분양 문의 02-6951-4226

총호수는 선착순으로 지정됩니다!